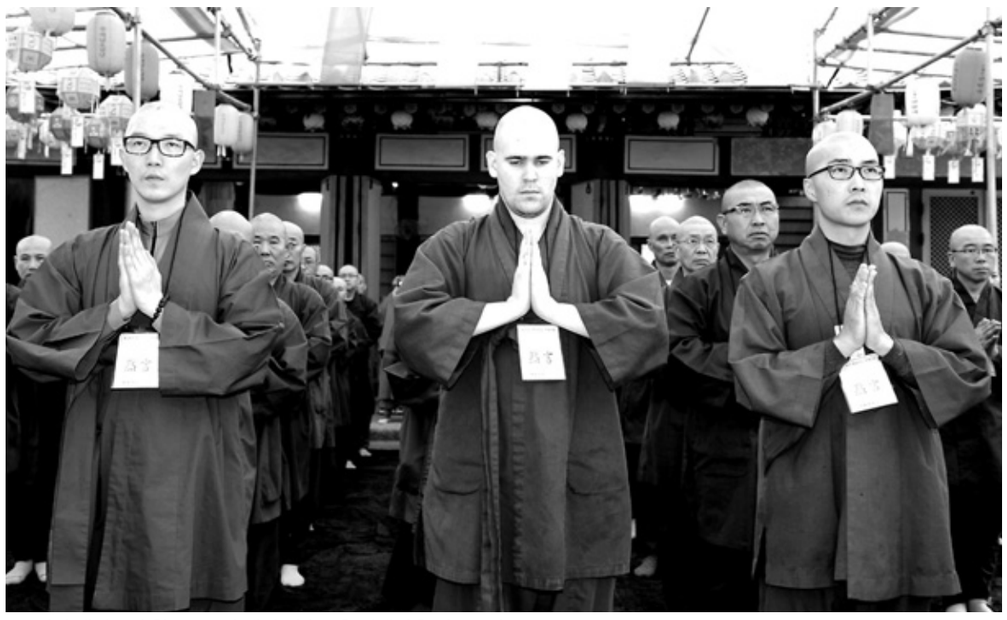
101명의 행자들 '부처님 품으로'

선암사 수계자 입제식 봉행



101명의 행자들이 합동득도 수계자 연수교육 입제식을 하는 모습

한국불교 태고종은 제36기 합동득도 수계자 연수교육의 입제식을 9월 2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입제식에 참여한 행자 101명(남 66명, 여 34명, 외국인 1명)의 출가자들은 입제식을 시작으로 21일간 연수교육을 받고 사미, 사미니계를 받게 된다.

연수교육은 목우 스님(선암사 강주), 성암 스님(선암사 총무), 진봉 스님의 지도 아래 예경의식, 불교기초교리, 초발심자경문, 아나빠나사띠 등을 이수한다. 특별 강의로는 태고종 종헌종법 포교와 사회복지 범음범패 사미율의 부처님일생 태고종사 불교의 리더십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3주간 매일 새벽 3시부터 새벽예불과 정근 강의 운력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참회 정진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수계식에 앞서 18일에는 경내 중간부도탑에서 대웅전 앞 특설도량까지 1.2㎞를 일보일배로 진행한다.

연수교육을 마친 행자는 10월 19일 수계식을 봉행하고, 종단 교육기관인 선암사 전통강원과 동방불교대학, 보덕사 비구니 전문 강원 등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뒤 정식 승려가 된다.

이날 입제식에서 태고종 종정 혜초 큰스님은 법어를 통해 "출가자는 대신심과 대분심, 대의령, 입지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며 "원력을 갖고 정진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어에 앞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수행자의 길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진리를 실천하는 고행의 길이다"라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태고종의 수행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원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7년 만의 다시 서기 지켜봐주세요"

군산대 대불련 회장 이종헌

개교초창기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며 재학생들의 신행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던 군산대학교 대학생불자회(이하 군산대 대불련)가 회원가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체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건의 날갯짓을 하고 있다.

6~7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산대 대불련을 재건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이종헌 (경영회계학부 3)학생은 작년부터 몇몇 법우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포스터를 제작해 교내 곳곳에 부착하는 등 재건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동국사 종걸 스님과 고선풍 명예교수(경영회계학부), 최강득 교수(회계학)의 적극적 후원으로 군산대 대불련 재창립의 결실을 맺게 됐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군산대 대불련이 해체되고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수년간 공백이 너무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유명무실한 활동으로 해체됐던 군산대 대불련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군산대 대불련 회장 이종헌 학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우선은 군산대 대불련의 존재가치를 교내외에 알리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홍보포스터를 교내 곳곳에 돌리고 홍보물을 학생회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아침 일찍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에게 홍보물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많은 문의 전화를 받을 때 마다 다시 새로운 힘이 넘칩니다."

이종헌 학생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불교에 입문해 매주 열리는 전북불교회관의 어린이 법회에 참석해 왔다. 자연스럽게 불교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종헌 학생은 중학교 때 발견된 무릎부위 악성종양으로 다리가 불편하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여러 차례 수술로 학업에 공백이 생겨 29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로 군산대에 재학 중이지만 후배들을 챙기면서 대불련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종헌 학생은 "창립법회 후에는 성지순례를 겸한 MT나 산사체험을 통해 회원간 친목과 화합을 통해 탄탄한 팀웍을 다질 생각이다.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면 동아리 박람회에도 참가하고 적극적인 회원 유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대 불교학생회는 군산동국사 종무 종걸 스님, 고선풍 명예교수의 도움으로 군산대 학생종합회관에서 9월 24일 재창립법회를 봉행했다. 군산대 대불련은 종걸 스님을 지도법사로 고선풍 교수를 지도 교수로 추대했고, 재창립 법회에는 재학생과 동문, 허양 군산신도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걸 스님은 "부처님도 처음에는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했으나 현재 불교인구는 15억 명에 이르고 있다" 며 "선배 동문들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재학생과 동문은 학업과 신행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지역의 각 사찰, 신행단체 관계자들은 군산대 대불련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대불련 동문회와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는 군산대 대불련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일정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문화축제 봉행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나눔 공동체 실현과 시와 음악, 감동이 넘치는 문화축제 '선운,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를 꿈꾸다' 를 9월 24~25일 3000여 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지 법만 스님은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 를 낭독하고 "선운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연적 가치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지역민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문화제가 되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음은 따로 찾는 것이 아니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도법 스님 초청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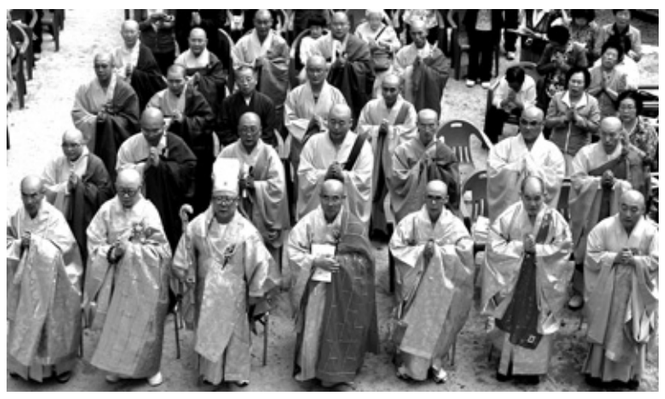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일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초청법회를 9월 25일 4층 큰 법당에서 봉행했다.

도법 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종교란 대중 모두에게 안락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고 전제하고 "종교가 사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종교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스님은 "마음은 따로 찾는 것이 아니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음' 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깨달음의 실천이요, 이것이야말로 수행이다"고 강조했다.

혜국 스님은 "이웃종교로부터 공감 받고 환영 받는 것이 한국불교의 미래이다" 며 "불자들은 마음으로 진정한 부처 보살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항 안향사 창건, 낙성식 열고 나눔도량 다짐



9월 25일 20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해 안향사 창건 낙성식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포항 남구 장기면 월산 안향사(주지 조향)는 창건 낙성식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산사음악회와 함께 9월 25일 열었다.

행사에는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 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포항승가연합회 혜봉 스님, 교계 스님 지역기관·단체장 및 영천 충효사 3사 순례단과 2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했다.

안향사 주지 조향 스님은 "포항 남구에 위치한 월산은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대자연인 영산으로 부처님이 상주하시고 하늘이준 복을 누리는 곳이라하여 안향사라 명명하고 마음의 쉼터를 창건하게 됐다"며 "불자님들과 이웃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모두의 쉼터이자 수행공간, 생태도량, 나눔도량으로 자리매김하여 가꾸어 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진심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효사 회주 해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주지스님의 법력과 신도 여러분들의 신심에 힘입어 국운이 융창되고 국민이 화합되어 국가와 사회, 가정, 개인이 불력과 법력으로 충만하길 삼가 분향 삼배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식순은 점안의식 집전, 2부 창건 낙성식 대법회, 3부 기념 산사 음악회 한마당으로 이어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무주상보시 실천 앞장"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상종)는 불교봉사조직인 '연화공덕회' 창립대회를 9월 26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고 본격적인 지역 복지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창립한 연화공덕회는 사암연합회와 함께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상종 스님은 "연화공덕회는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분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도원사,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사음악회

전남 화순의 도원사가 9월 24일 경내에서 사찰 개원 5주년을 기념해 지역 내 소년소녀 가장 돕기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도원사는 8가구 소년소년가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산사음악회에는 가수 김용님 정현 정주호 진주아 씨 등이 출연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정암(선각종 종정권한대행), 진철 스님(도원사 주지)을 비롯해 5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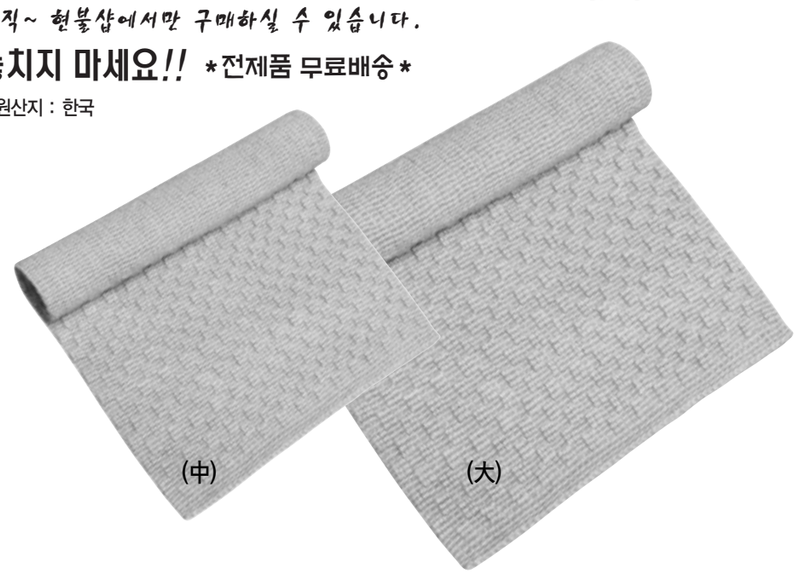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멍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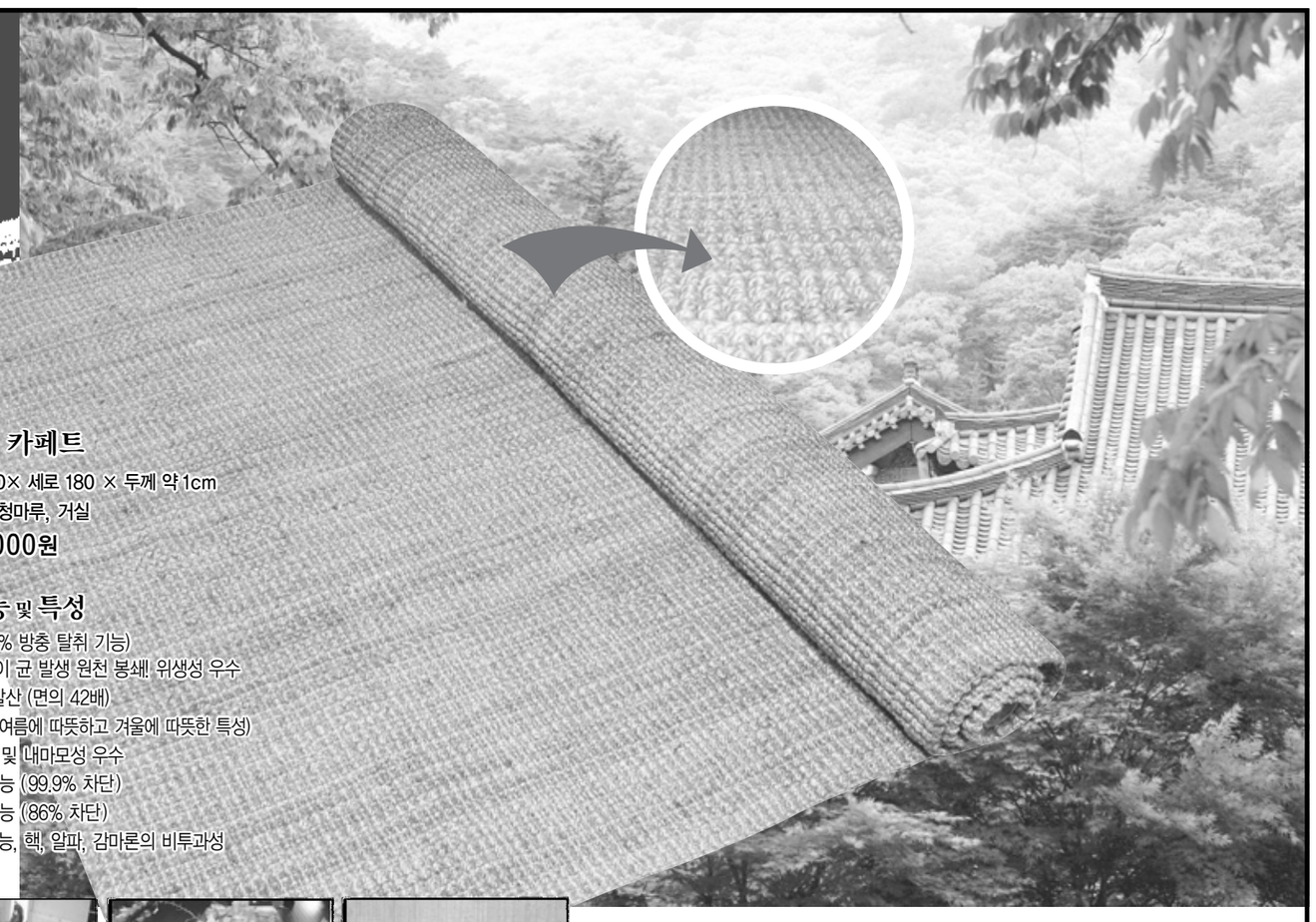
◇ 원산지 : 한국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 삼베 멍석 카페트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